

# 교통비 급등에 운전하기 겁난다



### 3~7월 교통비 두자릿수 상승...경유 47%·휘발유 25.5% 경증 용품 가격·엔진오일·수리비·주차료 등 줄줄이 올라 부담 가중

광주에서 직장을 다니는 김모(32)씨는 지난달 자신이 몰던 차를 동생에게 넘겼다. 유가가 상승하면서 기름값 부담이 만만치 않은 데다, 매달 할부금에 유지비까지 부담이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김씨는 "할부금에 기름값, 세차비와 엔진오일 교체 비용 등 매달 유지비만 60만원 수준에 달했다"며 "직장을 구해 차가 필요하다는 동생에게 차량을 넘기고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가 상승과 공급망 차질 등 여파로 교통비가 지난 3월부터 7월까지 5개월째 전년 대비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했다. 차 한 대를 끌고 다니기 위한 차량 운영비용은 물론, 주차료와 대리운전 비용까지 모두 올라 고물가 속 서민들의 교통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9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 교통비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3%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비 상승률은 지난 3월 12.7% 상승한 데 이어 4월 13.8%, 5월 14.5%, 6월 16.8% 등 5개월 연

속 두 자릿수 상승율을 기록하고 있다. 교통비가 다섯 달째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한 것은 1997년 12월~1998년 11월 이후 처음이다.

교통비가 급등한 가장 주요한 원인은 유가 상승이다. 교통비는 승용차 등 운송장비 가격, 연료비·수리비 등 개인 운송장비 운영 가격, 철도·도로·항공 등 운송 서비스 가격으로 구성된다.

이 중 개인 운송장비 운영이 7월 26.0%나 오르면서 전반적인 교통비 상승을 이끌었다는 분석이다. 경유는 무려 47.0%나 올랐고, 휘발유도 25.5% 급등했다. 자동차용 LPG도 21.4% 오르는 등 연료 가격이 크게 뛰었다.

유가 상승뿐 아니라 공급망 차질에 따른 원자재와 부품 가격 상승, 인건비 등도 덩달아 오르면서 기름값 말고도 개인 운송장비 운영 관련 다른 항목도 줄줄이 오르고 있다.

7월 카시트, 와이퍼 등 자동차용품은 18.1% 올라 2013년 9월(21.3%) 이후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고, 자동차용 타이어는 9.9% 가격이 올랐다.

여기에 엔진오일 교체 비용은 10.5% 상승해 2009년 6월(11.7%) 이후 최고치를 찍었다. 이밖에 자동차 수리비도 4.3% 올라 2008년 11월(4.3%)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인 데다, 세차비(8.9%)와 주차비(4.7%)도 상승하는 등 차량 유지비용 항목들이 줄줄이 올랐다.

승용차 입차료(24.7%)와 대리운전 이용료(13.0%) 역시 두 자릿수 상승률을 보였다.

이밖에 운송 서비스 가격도 2.8% 올랐는데, 국제항공료(23.0%)와 국내 항공료(16.3%)의 상승 폭이 컸다. 유가 상승으로 항공유가 크게 오른 데다,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여행 수요가 증가하면서 항공료 가격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또 이삿짐 운송료(7.3%)와 택배 이용료(4.7%)도 덩달아 상승했다.

직장인 박모(35)씨는 "최근 대리운전을 불렀는데 가까운 거리임에도 1만8000원이 나왔다"며 "코로나19 사태 이후 대리비용이 기존 1만원 초반에서 2만원을 넘어서는 등 크게 올랐다"고 말했다. 이어 "광주 시내 주차장 이용료는 30분에 1000원을 넘어서고 차량 내외부 스티미 세차 비용도 6만원 선이다. 치솟는 물가 속에 매달 차량 유지비 지출이 정말 부담스럽다"고 토로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추석 선물은 롯데상품권으로” 9일 롯데백화점 광주점 직원들이 10층 상품권 데스크에서 오는 9월8일까지 판매하는 ‘롯데상품권 추석 패키지’를 선보이고 있다. 구매 고객에게는 금액에 따라 0.5~3.5% 상당 상품권을 증정한다. <롯데백화점 제공>

# 소상공인의 버팀목 ‘광주은행 포용금융센터’

### 2019년 11월 개설 후 929명 무료 경영 상담·1600여명 특별대출...금감원, 우수사례 소개

지역 소상공인과 서민에 특화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문을 연 '광주은행 포용금융센터'가 2019년 11월 개설 이후 929명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무료 경영 상담을 벌였다.

9일 광주은행은 '포용금융대출' 연계 우수 직원 7월 수상자를 시상하며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광주은행 포용금융센터는 옛 광주은행 본점이 있던 동구 충장로 57에 지난 2019년 11월 20일 문을 열었다.

포용금융센터는 이달 현재 1600명이 넘는 소상공인과 금융 취약계층에게 366억원 상당 '포용금융 특별대출'을 지원했다.

소상공인 929명은 판촉과 세무, 상권분석 등 무료 경영 상담을 받았다.

지난 한 해에만 광주은행 포용금융센터가 완료한 경영 상담은 315건에 달하며, 지방은행 최다 실적을 기록했다.

포용금융센터에 상주하는 전문 상담가는 소상공인에 특화된 경영 상담을 받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이 공로를 인정해 지난해 '포용금융 경영 컨설팅 지원 부문 우수상'에 광주은행을 선정했다.

광주은행 포용금융센터는 '광주 동구 충장로 청년창업 빈집 지원사업'에 참가한 지역 청년의 창업을 돕기도 했다.

이 사례는 금융감독원이 은행권과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제도 운영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은행권 우수 경영 컨설팅 프로그램'으로 소개됐다.

'빈집 지원사업'은 총장로 4~5가 일대 빈 점포를 창업 공간으로 활용해 젊은 고객을 끌어들이고자 광주시 동구, 총장상인회가 기획한 사업이다.

광주은행은 자투리 웃감으로 가방 등 소품을 만드는 한 청년의 수공예 소매점 창업을 도왔다.

광주은행은 사업자 등록부터 내부 공사 등 창업 과정 전반과 창업 자금 마련을 지원해왔다. 소셜미디어(SNS)와 '스마트스토어'에 진출할 수 있도록



광주은행 송종욱(가운데) 은행장이 최근 광주시 동구 대인동 본점에서 '7월 포용금융대출 연계 우수 직원' 수상자들을 시상하고 있다. <광주은행 제공>

온라인 판매에도 공을 들였다.

'광주 추억의 총장축제' 등 지역 상인회와 연계한 행사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연계하기도 했다.

광주은행 포용금융센터는 청년 소상공인 창업을 체계적으로 돕고 이후에도 지속적인 관리지원을 펼치기 위해 '청년 창업 멘토-멘티'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했다. 또 비대면 경영 상담 플랫폼을 도입해 디지털 금융 강화에도 힘을 기울이고 있다.

광주은행은 매달 '포용금융대출 연계 우수 직원' 시상을 통해 포용금융지원 강화를 독려하고 있다.

7월 수상자에 선정된 한 직원은 지난 한 달 동안 광주시 동구의 '저신용 서민·소상공인 이자 지원'을 5건(6000만원 상당) 연계하는 성과를 거뒀다. 광주시 동구와 광주은행, 서민금융진흥원은 협약을 맺고 1년간 대출금리 5%를 지원하는 '이자 지원

사업'을 벌이고 있다.

동구에서 화장품 소매점을 운영하는 한 소상공인은 운영자금 3000만원 대출을 받으며 1년 동안 150만원의 이자 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다.

송종욱 은행장은 포용금융대출 연계 우수 직원을 시상하며 "광주은행의 54년 역사를 함께 일군 지역인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 광주·전남 대표은행의 역할과 책임에 온 힘을 기울여야 한다"며 "지역과 상생, 지역민과 동행", '이익 이상의 가치 추구'의 경영이념을 근간으로 지역발달경영과 포용금융 실천을 강화하고,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중서민에 대한 금융지원에 전 임직원이 뜻을 모아 적극적으로 임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 “납품단가 제값 받도록 연동제 도입해야”

### 전문가 제언 잇따라

중소기업의 납품단가 '제값 받기'를 위해서는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전문가의 제언이 나왔다.

납품단가연동제는 원청업체와 하청업체 간의 거래에서 원자재 가격 상승분이 납품 단가에 반영되게 하는 제도로,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라 제도 도입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다.

최수정 중소기업연구원 실장은 9일 서울 영등포구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납품단가연동제의 시범운영과 법제화'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와 같이 외부적 요인에 의해 원자재 가격이 상승한 경우라면 계약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납품단가 연동에 관한 사항을 계약에 넣도록 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송창석 숭실대 교수도 발표자료 나서 "원자재 가격 급등 상황에서 납품가격 조정 규칙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로서는 납품단가 연동제가 가장 적합한 제도"라고 말했다.

조은구 포스코 상무는 포스코가 운영 중인 납품단가 연동제에 대해 설명했다.

포스코는 현재 총 22개 품목에 납품단가 연동제를 적용하고 있고, 지난해에는 300개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단가를 약 1059억원 인상해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토론회에서는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기됐다.

양찬희 중소기업협회 혁신성장본부장은 "원자재 가격인상분에 대한 부담을 전적으로 중소기업이 떠안고 있어 중소기업이 고사 위기에 처해있다"며 "별도 요청이나 협의 없이도 원자재 가격 인상을 납품단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납품단가 연동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유환익 정경련 상무는 "납품단가연동제는 시장경제의 핵심인 가격에 대한 규제로 답답함을 조장하고 시장경제의 근본 가치인 계약을 무효화하는 등 시장경제 원리에 반하고 혁신을 저해하는 규제"라면서 "법제화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 전남신보, 고흥 나로도서 원스톱 보증 서비스

전남신보보증재단은 최근 고흥군 나로도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도(島)란도란 원스톱 보증 서비스'를 실시했다고 9일 밝혔다.

도란도란 원스톱 보증 서비스는 전남신보가 도서 및 어촌지역 소상공인의 편의를 위해 올해부터 시행하는 신규 사업이다.

소상공인이 전남신보와 은행에 별도로 방문하지 않아도 현장에서 신용보증을 이용할 수 있으며, 평균 연령이 높아 비대면보증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전남지역 자영업자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다.

전남신보는 올해 모두 12차례에 걸쳐 찾아가는 현장상담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번 현장상담을 통해 광주은행,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함께

보증상담부터 대출, 정책자금 연계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지원했다.

이번 원스톱 보증 서비스를 주관한 전남신보 순천지점은 순천시·곡성군·고흥군·보성군을 담당하고 있다.

최근에는 정부 정책에 맞춰 도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희망플러스 특례보증, 중·저신용 소상공인 지원 특례보증 등을 지원하고 있다.

정양수 전남신보 이사장은 "향후에는 유관기관과 협력을 더욱 강화해 보증 외에도 채무조정 연계, 컨설팅, 서민자금대출 등 다양한 서비스로 소상공인을 찾아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삼성전자 '스마트싱스 홈 케어'로 가족 안부 확인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503.46(+10.36)
↑ 코스닥	833.65(+2.79)
금리 (국고채 3년)	3.134(-)
↓ 환율 (USD)	1304.60(-1.80)

사는 가족의 안부를 확인할 수 있는 패밀리 케어 기능이다.

냉장고 문이 미리 설정해 놓은 시간 동안 계속 닫혀 있으면 등록된 가족의 스마트폰으로 푸시 알림이 전송되고 전화걸기 기능을 이용해 가족의 안부를 확인할 수 있다.

가족과 멀리 떨어져 거주하는 고령자가 평소보다 오랫동안 냉장고를 문 열지 않을 경우 아프거나 거동이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데 착안한 기능이다.

이 기능은 2018년 이후 출시된 스마트싱스 연동 가능한 냉장고에서 지원된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 “주 52시간 이후 워라밸 나빠졌다”

### 중소조선업 근로자 300명 설문

중소조선업 근로자의 절반 이상이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 이후 워라밸(일과 생활의 균형)이 나빠졌다고 응답했다.

9일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2일까지 중소조선업체 근로자 3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주52시간제 전면 시행 1년 영향 조사' 결과에 따르면 55.0%(165명)은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 뒤 이른바 워라밸이 나빠졌다고 응답했다. '좋아졌

다'는 응답은 13.0%에 불과했다.

주 52시간제 도입 뒤 워라밸이 나빠졌다고 응답한 165명은 '경제적 여유 부족'(93.3%·복수 응답)을 가장 큰 이유로 꼽았다. 또 '연장수당 감소 보전을 위한 투잡(Two-job) 생활로 여가 시간 감소'(35.8%)라는 답변이 뒤를 이었다.

조사에 참여한 300명 중 73.3%는 주 52시간제 시행에 따라 실제 임금이 감소했다고 답했다. 임금 감소액은 월평균 60만1000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